

<p>사례제목</p>	<p>QR 한번이면!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전시관</p>
<p>사례요약</p>	<p>전시 안전점검을 ‘근로자 중심’에서 ‘국민 주도’로 전환하여, 관람 중 QR코드로 위험요소를 제보하면 ‘신고·개선·공유’까지 이어지는 <b>참여형 안전관리체계</b>를 구축해 전년 대비 상반기 신고 3.4배, 국민참여 3.8배가 증가함. QR신고는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<b>안전 사각지대 조기인지</b>와 현장대응속도, 업무효율을 향상시킴.</p>
<p>사례제목</p>	<p>비대면 민원 대응 시스템으로 부정 청탁 가능성 제로, 탄소중립 실천!</p>
<p>사례요약</p>	<p>환경영향평가 검토업무 수행 시 일부 이해관계자는 원만한 협의 진행을 요구하며 의사결정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국립생태원 방문과 사업 설명을 강행하여 청탁 상황이 발생함. 이해관계자의 <b>부정청탁 가능성 차단</b>을 위해 <b>비대면 민원 대응 시스템</b>을 구축 및 <b>전면 전환하였으며</b>, 국립생태원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<b>민원인의 시간·비용 등의 절감</b>을 통해 <b>탄소중립 실현</b>에 기여.</p>
<p>사례제목</p>	<p>찾아가는 생태정원 모델 실천으로 생명 순환의 생태가치를 확산하다</p>
<p>사례요약</p>	<p>국립생태원은 <b>지리적 한계</b>를 극복하고 <b>생태 가치</b>를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<b>멸종위기 야생생물 인식 제고</b>와 <b>생태계 생명 순환</b>을 주제로 한 <b>‘찾아가는 생태정원 모델’</b>을 실천하였음. 이를 통해 약 9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,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과 99.1%의 높은 국민 만족도를 달성하였으며, 총 629만 명의 국민에게 생태 가치를 확산함.</p>
<p>사례제목</p>	<p>탄소를 품은 습지, 기후재난에 강한 나라를 만들다</p>
<p>사례요약</p>	<p>습지가 국가 통계상 ‘배출원’으로 분류되어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. <b>습지 탄소흡수량</b>을 수치로 입증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반영 기준을 마련해, 우리나라 습지 관리로 <b>연간 약 14만 톤 탄소 감축</b>이 가능한 <b>선제적 행정사례</b>로 기후재난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함.</p>
<p>사례제목</p>	<p>생태정보 혁신!-수집부터 활용까지 국립생태원이 선도한다.</p>
<p>사례요약</p>	<p>국립생태원은 분산된 생태정보 관리체계 및 비효율적 거버넌스 개선을 위하여 기관의 조직 개편과 <b>디지털 전환(DX)</b>을 추진하였음. 이를 통해 ‘수집부터 활용까지’ 가능한 <b>One-Stop 생태정보 서비스 기반</b>을 강화하고, EcoBank를 중심으로 민간, 연구자, 정책입안자를 위한 <b>생태정보 서비스 품질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임</b>.</p>